추석 물가 비상 … 농수축산물 가격 큰 폭 상승

▲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shutterstock

추석(10월 1일)을 한 달여 앞두고 '밥상물가' 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르면서 심리적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긴 장마와 폭우,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를 덮치면서 채소값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3일 '세계일보' 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날 배추, 무, 상추, 오이, 열무, 애호박 등 채소값은 1년 전보다 최대 18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가격과 대비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에서도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세가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해 지난 3월(1.0%)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54일) 장마와 집중호우에다 지난해 채소 가격이 하락(-17.8%)한 '기저효과' 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채소류가 28.5%나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10.6%나 상승한 영향이 컸다. 채소류 상승폭은 2016년 11월(32.9%) 이후 최대다.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은 12.1%, 돼지고기(16.2%)와 국산 쇠고기(9.5%) 등 축산물은 10.2%, 수산물은 6.4% 각각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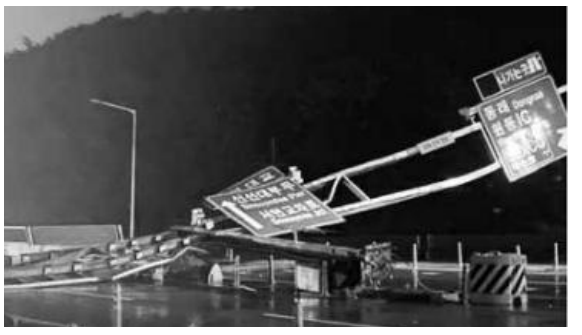
식품업계는 제품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에 대해 각종 식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인 각종 식음료 가격이 오르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태풍 '마이삭' 한반도 관통 … 피해 속출

제9호 태풍 '마이삭' 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58명의 이재민이 나왔고, 시설 피해도 속출했다.

3일 '아시아경제' 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집계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3명이다. 이재민은 42세대 58명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서 일시 대피한 인원은 1,640세대 2,834명이며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122명이다.

시설 피해는 모두 1,550건(공공시설 825건, 사유시설 725건)이 접수됐다. 공공시설 가운데 신고리원전 4기의 운영이 일시 중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새벽 0시 59분부터 새벽 3시 1분 사이 신고리 1호기와 신고리 2호기,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가 차례대로 정지됐다고 밝혔다. 외부 전원 이상에 따른 자동 정지로 방사능물질 유출은 없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 태풍 마이삭으로 부산 시내 도로표지판을 지탱하고 있던 철골 구조물이 쓰러졌다. 사진=유튜브(부산일보) 영상 캡처

이밖에 도로와 철도 침수, 가로수 파손, 신호등 파손, 가로등 파손, 전신주 파손, 농작물 피해, 양식장 피해 등이 잇따랐으며 전국적으로 29만4,169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제9호 태풍 '마이삭' (Maysak)이 이날 오후 북한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되며 소멸됐다.

국가 부채 급증

저출산·고령화 등 원인

▲ 그래픽=타운뉴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상대적으로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대 중반 최대 9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5년 전 최대 62.4%로 예상했던 2060년 전망치도 최대 81.1%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였다.

2일 '이데일리' 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실시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대 중반 인구·거시변수 시나리오별로 84~9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후 2060년까지 원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이란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수준인 고령화 속도로 생산인구 감소와 사회복지 비용의 급증이 결정적 배경이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현재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될 경우엔 2043년 84%로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변수를 감안하면 현재의 인구감소세가 둔화될 경우엔 2044년 국가채무가 97%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2060년 전체 인구는 894만명, 생산가능인구는 1,678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세가 둔화될 경우조차도 감소폭은 각각 386만명, 1,403만명에 달한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GDP의 38.2%로 이는 OECD 평균 108.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2018년 OECD 33개국 중 30위였지만, 2011년 대비 2018년 증가폭은 14위였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